2014년 6월 30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월 29일(일) 12:00 이후 보도 가능
www.smba.go.kr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보 도 자 료

성장 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• 문의: 정책총괄과 • 과장: 변태섭(042-481-4542) • 사무관: 김정은(042-481-4542)

5월 신설법인 6,365개, 전년 동월 대비 소폭 하락

□ 중소기업청(청장 한정화)은 **「5월중 신설법인 동향」을 발표했다.**

○ **5월 신설법인은 6,365개로, 전년 동월 대비 1.9%(123개) 하락**

- 전년 동월 대비 **영업일수 감소(22일→20일, △2일)에 기인**

  * 신설법인(개) : ('13.5) 6,488 → ('14.4) 7,226 → **('14.5) 6,365**

○ **1~5월 누계 신설법인은 34,352개로** 전년동기(31,848개)보다 **2,504개** (7.9%) **증가**

  * 1~5월 신설법인(개) : ('12) 31,358 → ('13) 31,848 → **('14) 34,352**

□ **'13년 5월과 비교한 5월중 신설법인의 주요 특징**은 다음과 같다.

○ **(업종)** 제조업, 서비스업은 감소, 건설업은 증가

- **(제조업, 1,410개, △10.0%) 식료품**(△77개, △34.4%), **기계·금속업** (△41개, △10.9%)을 중심으로 **157개(10.0%) 감소**

- **(서비스업, 4,032개, △1.6%) 출판·영상업**(△91개, △16.6%), **도·소매업**(△186개, △12.5%)이 감소를 주도하여 **65개(1.6%) 감소**

○ **(연령)** 50대·60대는 증가, 40대 이하는 하락, 특히 30대 이하(39세↓)는 제조업(△37개), 건설업(△22개), 서비스업(△150개) 모두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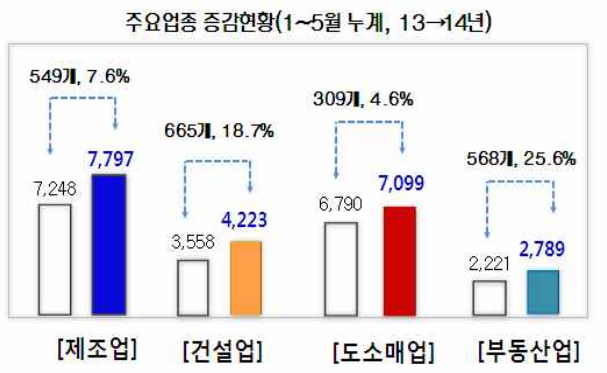
  * 연령대별 증감율(전년동월대비, %)
  : (30세미만) △9.3, (30대) △10.5, (40대) △2.0, (50대) 7.6, (60세이상) 4.7

○ **(지역)** 인천(△20.6%) 등 8개 시도에서 감소

□ 한편, 1~5월 누계 기준으로 '1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신설법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.

○ **총 34,352개로 전년동기대비 2,504개(7.9%) 증가**

- **제조업 549개(7.6%), 건설업 665개(18.7%), 서비스업 1,241개(6.2%) 증가**



○ **연령대별-세부 업종별** 특징을 살펴보면,

- **(30세 미만) 3.5% 감소**(1,570개 → 1,515개, △55개)

· 제조업 36개(13.4%), 건설업 21개(18.9%)은 증가, **서비스업은** 도소매업(△68개)을 중심으로 **97개(8.4%) 감소**

- **(30대) 3.7% 증가**(7,514개 → 7,791개, 277개)

· 제조업은 65개(4.6%) 증가, **서비스업은 도소매업**(274개), **전문기술서비스업**(53개)이 증가하면서 256개(4.8%) **증가**

- **(40대) 8.6% 증가**(12,508개 → 13,582개, 1,074개)

· **제조업은 176개**(전기·전자 72개, 자동차 및 운송장비 61개), **서비스업은** 부동산임대(247개), 전문과학기술서비스(146개)을 중심으로 **649개 증가**

- **(50대) 11.3% 증가**(7,848개 → 8,732개, 884개)

· **제조업은** 목재가구(△14개), 기타제조(△10개)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**231개(10.9%) 증가**, 건설업 293개(30.0%), **서비스업 336개(7.5%) 증가**

- **(60세 이상) 13.4% 증가**(2,376개 → 2,694개, 318개)

· 제조업 41개(7.6%), 건설업 147개(53.6%), 서비스업은 부동산업(88개) 증가로 89개(6.1%) 증가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김정은 사무관(☎ 042-481-45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